

# 1820년대부터 팝업북 200년사 한눈에

전주문화재단,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개관 기념  
 'The Pop-up Books: 팝업북의 역사를 만나다'展  
 내년 2월 28일까지... '피노키오 팝업' 초판본 소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10일 팔복예술공장에 예술그림책도서관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개관을 기념해 팝업북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 'The Pop-up Books: 팝업북의 역사를 만나다'전을 열었다. 전시 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다.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은 세계 희귀 그림책을 수집해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전용 공간인 팔복야호예술홀이터에 마련된 공간으로, 그 첫 번째 도서 선정 주제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 팝업북이다.

오롯이 종이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팝업의 한 장면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야기

를 더 풍부하게 경험한다.

'The Pop-up Books: 팝업북의 역사를 만나다' 전에서는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1820년대 빈티지 팝업북부터 2000년대 현대 팝업북까지 80여권의 주요 팝업북이 소개되며, 시대에 따라 팝업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기술과 창의성의 진화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1820년대 제작된 바르세유 궁전 터널북과 파노라마북 최초의 그림책인 사무엘 에드워드 마벨리의 '험프디 덤프티(Humpty Dumpty)', 19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작가 로타 메켈도르프와 에른스트 니스터의 대표 작품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1932년 팝업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헤랄드 렌츠의 '피노키오 팝업(Pop-Up of Pinocchio)' 초판본도 소개된다. 그의 1960년대를 대표하는 보이체 쿠바스타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와 천재 디자이너 부르노 무나리, 로버트 사부다의 작품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팝업의 명장면과 만나는 감동을 선사한다.

팔복예술공장의 A동과 B동을 연결하는 컨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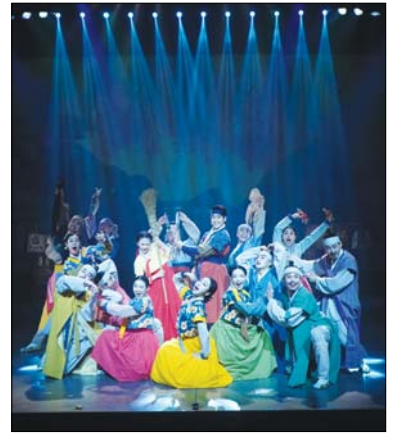


이너브리지 아래 '그림방'에서는 이번 전시와 연계해 팔복예술공장 방문객들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팝업북을 전시하고 있다.

팔복예술공장 황순우 총괄 감독은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은 '예술이 책이 되고 책이 예술이 된다'라는 공간 운영 철학 아래 앞으로 예술그림책을 활용한 다채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세계 대표 팝업북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그림책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에서는 13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만의 아트북 만들기 'Made in 팔복도서관'도 운영한다.

이번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개관전의 전시 관람 및 이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관람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예약은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www.palbookart.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문의는 전화(063-283-9221, 070-4236-1589)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관광 브랜드 공연  
 뮤지컬 '홍도1589' 재개

전북관광 브랜드 공연 뮤지컬 '홍도1589'가 7일부터 공연장 22석 중 50석 제한으로 공연을 재개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발표에 따라 14일부터 공연장 75석으로 뮤지컬 '홍도1589'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람석 제한으로 1일 75석 이하로 예약을 받고 있다. 사전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해 필수로 예약을 해야 하며, 당일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에서 예약할 수 있다.

본 공연이 재개하면서 현장에서 대면으로 기다렸던 관객들과 관객을 기다렸던 배우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배우들의 열정을 담은 공연을 준비할 계획이다.

홍승광 추진단장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항후 순차적으로 공연 좌석을 오픈해 많은 관객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뮤지컬 '홍도1589'는 제3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홍도'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작품으로 평등한 세상을 꿈꾸 조선 시대 혁명가 정여립의 삶과, 불사의 몸으로 자신의 첫사랑을 400년 동안 기다려 온 정여립의 손녀 '홍도'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12월 12일까지 수·목 오후 7시 30분과 금·토 오후 3시에 전북예술회관 4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show/hongdo)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8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담판' 15일부터 유튜브 영상 송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15일부터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담판(이하 담판)을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송출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담판은 판소리의 인류무형유산으로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객들에게 판소리의 인문학적 지식을 향상시켜주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으로, 풀이꾼 원기중(국문학 박사)과 이야기꾼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 원장)의 진행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 '인당수 투신과 환생'편을 김지숙 명창의 심청가 중 범피종류 부터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여섯 번째 이야기 '꽃으로 피어난 황후 심청'편에서는 김현주 명창의 심청가 중 화초타령 대목, 이 지속 명창의 추월만정 대목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의 자세한 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 혹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이번 공연을 포함한 2020년도 담판 음원을 모두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남원=립기투 기자

## 산골 아이들의 영화 산책... '키즈 스테이지'

무주산골영화제 시즌2, 30일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영화관 운영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7일 '시즌 2 : 무주 상영회'를 시작한 가운데, 매년 어린이 관객과 가족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 키즈 스테이지 역시 8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통해 무주 어린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6일, '온라인 시즌 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어 '시즌 2 : 무주 상영회'를 시작,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로 지친 무주군민과 함께 낭만적인 영화 여정을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시즌 2 : 키즈 스테이지 - 찾아가는 어린이 영화관'이 성공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즌 2 : 키즈 스테이지 - 찾아가는 어린이 영화관'은 전라북도교육청, 무주교육지원청의 지원과 협력으로 오는 30일까지 무주군 소재 초등학교



테이지 - 찾아가는 어린이 영화관'은 전라북도교육청, 무주교육지원청의 지원과 협력으로 오는 30일까지 무주군 소재 초등학교

7개소와 유치원 1개소, 총 8개소의 교육기관에서 상영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영작으로는 '우리집'(감독 윤가은), '꼭두 이야기'(감독 김태용), '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감독 시즈노 코분)를 비롯해 한국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 8편과 무주 청소년 제작 단편영화 3편 등 키즈 스테이지 상영작 총 14편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무주산골영화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유로운 학교생활 및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즌 2 : 키즈 스테이지 - 찾아가는 어린이 영화관'은 매 상영마다 관람 가능한 어린이 관객을 50인 이하로 구성하고, 참여 관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 공연·전시

### 뮤지컬 배우 총출동

'뮤지컬 더 스테이지' 16일  
 김제문화예술회관서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선정된 민간예술 단체 우수 작품 '뮤지컬 더 스테이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배우 남경주, 이진명, 최정원, 김호영과 팝 소프라노 이리현, 장소연, 유명지 3인이 함께 펼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이다. 뮤지컬과 팔레타를 대표하는 7인의 명품 가창력을 11인조 라이브 밴드 사운드에 맞춰 만나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13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0년 10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축! 전주매일 창간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당신 편에서 생각합니다**

보험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은 더 든든하게, 보험료 부담은 낮게  
 당신 편에서 보장을 생각합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



전주시는 13일부터 19일까지 송천도서관 야외마당에서 '전주책이 피었습니다', '다독다독, 북큐레이션', '전주 올해의 책 100일 필사' 등 다양한 도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전주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책 추천해드려요"

오늘부터 19일까지 송천도서관 야외마당서 도서 전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13일부터 19일까지 송천도서관 야외마당에서 '전주책이 피었습니다', '다독다독, 북큐레이션', '전주 올해의 책 100일 필사' 등 다양한 도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책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전주 지역의 작가와 작품들을 알리고 전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2019년 전주 지역 작가가 낸 단행본과 전주 관련 콘텐츠가 담긴 출판물 130여 권이 전시된다.

지난 8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jbook.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독다독, 북큐레이션'의 경우 북큐레이터가 행사 기간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맞춤형 책을 추천해주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큐레이터는 시민들의 삶과 일상, 인간관계, 직업, 독서, 건강, 환경, 주거공간 등 다양한 주제에 맞는 책을 선별해 제안할 예정이다. 추천 도서는 총

135권이다.

'전주 올해의 책 100일 필사'는 ▲오랫차차 조선 실록 수호대(장은영 저) ▲수상한 생각, 위험한 질문들(강양구 저) ▲일의 기쁨과 슬픔(장류진 저) 등 '2020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3권을 시민들이 직접 필사해 완성한 노트를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관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jbook.kr) 또는 덕진도서관 책읽는도시팀(063-281-65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전주시 덕진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전주 지역의 작가들도 널리 알리고, 또 마음을 치유할 책들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